

2019년 시행 고3 6월 모평 국어 해설

본 해설은 현직 선생님들께서 시간과 노력을 들여 손수 만드신 재창작물입니다.
따라서 본 해설의 무단 배포 시, 콘텐츠산업진흥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제 1 교시 나무아카데미 국어영역

1

1	④	2	②	3	②	4	⑤	5	②
6	④	7	②	8	③	9	⑤	10	③
11	③	12	①	13	②	14	④	15	⑤
16	⑤	17	③	18	③	19	②	20	④
21	⑤	22	⑤	23	③	24	⑤	25	①
26	②	27	④	28	③	29	①	30	③
31	②	32	①	33	④	34	⑤	35	④
36	③	37	③	38	④	39	⑤	40	②
41	①	42	④	43	⑤	44	①	45	④

[1~3] 화법

[지문 분석]

여러분, ‘탈’(핵심 화제 제시)이라고 하면 무엇이 떠오르세요?
(질문을 통한 주의 환기) (청중의 대답을 듣고) 저는 며칠 전에
『세계 여러 나라의 탈』이라는 책을 읽었는데요,(핵심 화제와
관련해서 자신의 경험 언급) 인상적인 탈(발표의 주제)이 있어
서 여러분께 소개하고자 발표 주제로 선정했습니다. 발표를 준비
하던 중 마침 국어 시간에 ‘봉산 탈춤’(발표자에게 도움이 된 경
험과 구체적인 작품 언급)을 배워서 발표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화면 1(시각적인 자료)을 가리키며(비언어적인 표현)
이 탈의 이름을 아세요?(질문을 통한 주의 환기) (청중의 반응
이 없자) 안동에서 볼 수 있는 탈(추가 정보 제시)이에요. (대답
을 듣고)(청중과의 소통) 하회탈이라고 말씀하신 분들이 많군요.
흔히들 그렇게 알고 계시는데 정확히는 하회탈 중 양반탈입니
다.(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잘못된 정보를 바로 잡음) ‘봉산 탈춤
의 양반탈과 달리(대조) 눈 아래부터 귀 위까지 이어진 선이 눈
꼬리와 겹쳐 미소를 만드는데, 단순한 얼굴형에 특별한 장식이나
화려한 색채 없이 눈썹, 눈, 코, 입을 선으로 표현(양반탈(화면
1)의 특징 묘사)한 것이 인상적입니다. “양반은 냉수 마시고도
이 썩신다.”(관용적 표현)라는 말에 담긴 허풍과 여유(양반탈(화
면1)에서 받은 인상)가 동시에 느껴지지 않나요?

(화면 2를 가리키며) 이 탈은 중국의 장수 관우 탈(다른 탈의
소개 - 중국의 탈)인데요, 무엇이 가장 먼저 보이세요?(질문을
통한 주의 환기) (청중의 대답을 듣고) 저는 용이 새겨진 복잡
한 모양의 관에 시선이 갑니다.(관우 탈의 모습 묘사) 양반탈
이 이마 부분까지만 표현돼 있는 것과 달리(대조) 관우 탈은 머
리에 쓴 관까지 표현돼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얼굴이
강렬한 붉은 색(관우 탈의 모습 묘사)이어서 무시무시하면서도
화려한 느낌(관우 탈이 주는 느낌)을 줍니다. 얼굴과 머리 부분
을 모두 이용해 관우의 박력과 위업(관우 탈에서 받은 인상)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 인상적입니다.

마지막은 아프리카 카메룬의 탈(다른 탈의 소개 - 카메룬의
탈)입니다. 일반적으로 아프리카의 탈은 과장과 생략(아프리카
탈의 특징)이 특징입니다. (화면 3을 가리키며) 보시는 것처럼
이 탈도 추상적으로 보일 만큼 과감한 생략이 인상적인 데요, 단
순한 곡선과 직선으로 표현된 커다란 눈이 작은 코와 대비(카메

룬 탈의 특징)되어 더 두드러져 보입니다.

지금까지 소개한 탈들을 (화면 4를 가리키며) 이렇게 정리해
보았습니다.(발표의 마무리) 선을 활용하여 단순하게 표현된 왼
쪽 탈들, 화려한 장식에 다소 복잡한 오른쪽 탈(탈을 단순성과
복잡성으로 나눔)이 보이시죠? 이 차이가 탈의 용도 때문은 아
닌지 궁금하여 기회가 되면 ‘탈의 용도에 따른 모양’(발표자가
관심을 두고 있는 내용)이란 주제로 탐구해 보려 합니다. 여러분
도 한번 조사해 보시면 어떨까요?(질문을 통한 주의 환기) 이만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문 확인]

- 갈래: 발표
- 주제: 각각의 인상을 가진 다양한 탈의 특징
- 특징
 - 다양한 시각 자료를 활용하여 청중의 이해를 도움.
 - 질문을 하며 청중과 상호 작용함.

1. <답> ④

<정답률> 89%

<정답 풀이>

④ ‘이 탈의 이름을 아세요? (청중의 반응이 없자) 안동에서 볼
수 있는 탈이에요.’를 보면 청중에게 질문을 던지고 청중의 반응
을 확인한 후에 추가 정보를 제시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용어의 개념을 설명하고 있지 않다

② 주제를 선정한 후에 수업 시간에 배운 작품이 도움이 되었다
고 했다.

③ 전문가의 말을 인용한 부분은 나와 있지 않다.

⑤ 마무리 단계에서 청중의 이해도를 확인하는 모습은 찾을 수
없다.

<TIP>

선택지와 지문의 내용을 꼼꼼하게 읽고 선택지에서 언급한 모든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2. <답> ②

<정답률> 77%

<정답 풀이>

발표자가 각 탈의 형태적 특징을 중심으로 소개한 다음(A), 마
지막에 형태에 따라 탈을 나누고 있다.(B)

<오답 풀이>

① A에서 카메룬의 탈은 색채와 상관이 없다.

③ A에서 발표자는 인상적인 순서로 탈을 제시한 것이 아니다.

④ A에서 발표자는 지리적으로 인접한 것을 언급하지 않고 탈을
소개하고 있다.

⑤ A에서 발표자는 표현된 선의 유사성은 언급하고 있지 않다.

<TIP>

이 문제는 듣기 전략을 평가할 수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문제
이다.

3. <답> ②

<정답률> 81%

<정답 풀이>

② “양반탈 말고 다른 하회탈도 설명해 주겠지?”가 유일하게 발표를 들으며 갖게 된 의문으로 볼 수도 있지만 다른 하회탈에 대한 설명이 없으므로 의문을 해결하며 듣고 있는 것은 아니다.

<오답 풀이>

① “양반탈 말고 다른 하회탈도 설명해 주겠지?”를 통해 예측하며 능동적인 태도로 듣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③ “발표자가 말한 대로 ‘탈의 용도에 따른 모양’에 대해 조사해보면 좋을 것 같아.”를 통해 발표자가 제안한 탐구 주제를 긍정적으로 수용하며 듣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④ “나도 관우 탈을 박물관에서 봤을 때에 정말 화려하다고 생각했었어.”를 통해 발표 내용과 관련된 경험을 떠올리며 발표자의 설명에 공감하며 듣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⑤ “저 탈이 하회탈인 줄 알았는데, 하회탈의 한 종류였구나.”를 통해 발표를 통해 알게 된 새로운 정보를 활용하여 기존 지식을 수정하며 듣고 있음을 알 수 있다.

<TIP>

<보기>의 반응이 어떤 내용인지 말하기와 듣기의 방법을 중심으로 잘 파악해야 한다. 다른 사람의 말을 듣는 태도와 반응에 대한 문제는 꾸준히 나오는 유형이므로 기출을 통해 유형을 확실히 알고 푸는 것이 좋다.

[4~7] 화법과 작문

[지문 분석] (가)

‘전통 한옥의 멋’ 솔빛 마을이 달라진다

솔빛 마을, 시청과 한옥 관광지 조성에 합의

시청 측과 솔빛 마을 주민 측은 △월 △일 시청(협상의 주체, 날짜, 장소)에서 회동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전통 한옥의 가치 전파(협상 목적의 의의)를 위한 한옥 관광지 조성(협상의 목적) 사업을 연내 추진하는 데 큰 틀에서 합의했다.

시청 측은 솔빛 마을의 한옥이 타 지역 한옥에 비해 규모가 크고 보존 상태가 양호해(솔빛 마을이 협상의 대상이 된 이유) 사업 경쟁력이 충분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전통 문화 체험 프로그램 운영, 둘레 길 조성, 마을 진입로 정비(관광지 조성을 위한 계획)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민 측도 사업이 마을 발전과 한옥의 가치 전파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주민들의 긍정적인 기대) 다만 한옥 관광지로 조성된 인근 ○○ 마을에서 발생한 과잉 관광 현상이 솔빛 마을에서 되풀이되지는 않을지 걱정했다.(주민들이 우려하는 점)

지역 연구소 자료(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하면 2010년 이래 ○○ 마을의 마을 소득과 관광객 수는 각각 연평균 약 5 %, 7 %(구체적인 수치)씩 증가했다. 그러나 관광객 수가 마을이 감당할 수 있는 방문 인원의 최대치인 관광 수용력을 초과(과잉 관광 현상)했다. 이로 인해 주민들은 각종 문제에 봉착했고, 그에 따라 올해 4월 기준 ○○ 마을의 토착 거주 인구는 8년 전 대비 12 %(구체적인 수치) 감소했다.

주민 측은 ○○ 마을을 타산지석(관용적 표현)으로 삼아 예상되는 문제(과잉 관광 현상으로 인한 각종 문제)를 최소화할 방

안을 마련해 이를 시청 측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측은 세부적인 사업 추진 계획을 협의하기 위해 이달 내 추가 협상을 진행한다.(관광지 사업과 관련한 향후의 계획 안내)

[지문 확인] (가)

- 갈래: 기사문
- 주제: 한옥 관광지 조성을 위해 솔빛 마을과 시청의 노력
- 특징
 - 신문 기사로 객관적인 사실만을 전달하고 있다
 - 양측의 입장을 공정하게 전달하고 있다.
 - 구체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신뢰성을 높이고 있다.

[지문 분석] (나)

시청 측 : 지난 협상 후 기사를 통해 여러분의 입장을 확인했습니다.(공감대 형성) 성공적인 사업 진행을 위해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합니다.(사업의 성공을 위해 주민들의 협조를 당부) 우선 주민들의 한옥을 관광객들에게 개방해 주시기 바랍니다.(시청 측의 요구) 관광객에게 한옥 내부를 직접 관람하는 기회를 제공하면 관광객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근거, 설의법)

주민 측 : 저희도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공감대 형성) 그러나 한옥 내부를 개방하면 주민들의 생활이 침해받아 삶의 질이 저하될 것(시청 측 요구에 대한 반대 근거)입니다. 결국 ○○ 마을처럼 오랫동안 거주했던 주민들이 떠난 자리가 관광업에 종사하는 외지인들로 채워져, 전통 마을로서의 모습도 퇴색될 것(시청 측 요구에 대한 반대 근거)입니다.

시청 측 : 이해합니다.(공감대) 저희도 모든 한옥을 개방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상호 이익이 되기 위한 협상 내용 수정) 희망하는 주민들에 한하여 한옥을 개방(주민 측의 찬성을 끌어내기 위한 시청 측의 해결 방안①)하되 가능하면 많이 동참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개방을 허락하실 경우에도 예약한 관광객에게만 관람을 허용(주민 측의 찬성을 끌어내기 위한 시청 측의 해결 방안②)하고, 한옥 관광 도우미가 동행하여 미개방 영역이 침해되지 않도록 관리(주민 측의 찬성을 끌어내기 위한 시청 측의 해결 방안③)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우려하시는 바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민 측 : 한옥 내부 관람을 앓고 골목길 관람만 한다 해도 많은 관광객이 한곳에 몰리면 현재의 마을 여건(해결의 실마리)상 개방 여부와 상관없이 주민들의 삶이 침해될 것(주민들의 피해)입니다. 많은 관광객이 다닐 만큼 길이 넓지도 않고요.(관광객의 피해) 결국 지역 주민의 삶의 질과 관광객의 여행 경험의 질이 동시에 악화될 것(주민과 관광객의 피해)입니다.

시청 측 : 한옥 내부 관람 인원은 매일 일정 수 이하로 제한(주민들의 우려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①)하고, 단체 관광은 마을 관광 에티켓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만 실시(주민들의 우려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②)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실시간 정보 안내판을 설치하여 관광객의 동선이 분산되도록 유도(주민들의 우려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③)하겠습니다. 이 방법으로 특정 장소에 관광객이 몰리는 것(주민들의 우려)을 방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민 측 : 그 정도 계획은 마을의 여건을 고려할 때 받아들일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상호 합의를 위한 양보)이라 봅니다. 그러면 한옥 개방 시간은 오후 5시까지로 제한(주민 측의 요구①)해 주십시오. 또한 한옥 관광 도우미로 지역 어르신들을 우선 채용(주민 측의 요구②)해 주십시오.

시청 측 : 지역민 일자리 창출이라는 측면에서 채용 건은 수용할 수 있습니다.(주민 측의 요구 수용) 대신 개방 시간은 늘려 주시길 바랍니다.(시청 측의 요구) 야간 개방에 대한 관광객들의 호응이 클 것이므로 관광 산업이 활성화될 것(시청 측의 근거①)입니다. 그러면 주민들의 소득도 증대(시청 측의 근거②)되지 않을까요?

주민 측 : 개방 시간을 연장하면 주민들의 피로도가 높아질 것(주민 측의 반대 의견(문제점))입니다. 그것을 상쇄할 만한 대가(해결의 실마리)를 얻는다면 주민들이 연장에 찬성하겠지만, 실질적으로 개방 시간 연장의 이득은 관광 산업에 종사하는 일부에게만 돌아갈 것(개방 시간을 연장했을 때의 문제점①)입니다. 야간 개방으로 주민들의 불만이 커지면 시청 측도 부담(개방 시간을 연장했을 때의 문제점②)이 되지 않을까요?

시청 측 : 그러면 야간은 아니더라도 오후 7시까지 개방은 고려해 주십시오.(상호 이익을 위한 시청 측의 요구 사항 수정) 그 후는 주민들의 생활을 배려하여 관광객들의 방문을 엄격히 제한하겠습니다.(시청 측의 약속)

주민 측 : 그렇게 하신다면 그 점은 주민들과 다시 상의해 보겠습니다. 대신 관광 산업 발전으로 증대된 세수는 반드시 주민 생활 복지 개선에 사용해 주십시오.(주민 측의 요구) 노인 회관 시설 개보수와 주민 문화 시설 마련(주민 측의 요구)에 중점적으로 활용해 주신다면 개방 시간과 관련해 주민들의 동의(시청 측이 해결해야 하는 문제)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지문 확인] (나)

- 갈래: 협상
- 주제: 한옥 관광지 조성을 위한 구체적인 협상
- 특징
 - 상호 협력적으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 타당한 근거를 들어 주장을 하고 있다.

4. <답> ⑤
<정답률> 86%
<정답 풀이>
⑤ 관광지 운영에 따른 피해 경감 사례가 아닌 피해 사례만 나와 있다.
<오답 풀이>
① “시청 측은 솔빛 마을의 한옥이 타 지역 한옥에 비해 규모가 크고 보존 상태가 양호해 사업 경쟁력이 충분할 것이라고 말했다.”를 통해 사업 경쟁력에 대한 판단을 하고 있다.
② “전통 문화 체험 프로그램 운영, 둘레 길 조성, 마을 진입로 정비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를 통해 사업 추진 계획을 알 수 있다.
③ “주민 측도 사업이 마을 발전과 한옥의 가치 전파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한옥 관광지로 조성된 인근 ○○ 마을에서 발생한 과잉 관광 현상이 솔빛 마을에서 되풀이되지는 않을지 걱정했다.”를 통해 주민 측은 사업 추진에 따른 기대와 우려

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④ “2010년 이래 ○○ 마을의 마을 소득과 관광객 수는 각각 연평균 약 5 %, 7 %씩 증가했다. 그러나 관광객 수가 마을이 감당할 수 있는 방문 인원의 최대치인 관광 수용력을 초과했다. 이로 인해 주민들은 각종 문제에 봉착했고, 그에 따라 올해 4월 기준 ○○ 마을의 토착 거주 인구는 8년 전 대비 12 % 감소했다.”를 통해 ○○ 마을 한옥 관광지 사업 관련 통계를 알 수 있다.
<TIP>
<보기>의 항목과 지문의 내용이 일치하는지 확인하면서 풀면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다.

5. <답> ②
<정답률> 75%
<정답 풀이>
② 독자인 지역 주민의 이해도를 고려해 낯선 용어인 ‘관광 수용력’이라는 정보의 개념을 쉽게 설명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과 <보기>는 모두 인과 관계에 따라 정보를 배열하고 있다.
③ 상세한 설명이 추가되었으나 삭제된 정보는 없다.
④ 수정되거나 삭제된 담화 표지는 없다.
⑤ ㉠과 <보기>는 둘 다 두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TIP>
선택지를 읽으면서 초안과 지문의 내용을 비교한 후 정확하게 맞지 않는 선택지는 과감하게 오답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좋다.

6. <답> ④
<정답률> 84%
<정답 풀이>
④ [D]에서는 ㉡에 대한 입장을 드러내면서 상대측에 그에 대한 대안을 요구하고 있다.
→ [D]에서는 일자리 창출에 대한 내용을 찾을 수 없다.
<오답 풀이>
① [A]에서는 ㉡와 관련된 문제 상황을 언급하며 상대측의 요구에 대한 입장을 제시하고 있다.
→ [A]의 “주민들의 사생활이 침해받아 삶의 질이 저하될 것입니다. 결국 ○○ 마을처럼 오랫동안 거주했던 주민들이 떠난 자리가 관광업에 종사하는 외지인들로 채워져, 전통 마을로서의 모습도 퇴색될 것입니다.”를 통해 알 수 있다.
② [B]에서는 ㉢와 관련된 문제의식을 드러내며 상대측 의견에 대해 부정적으로 전망하고 있다.
→ [B]의 “결국 지역 주민의 삶의 질과 관광객의 여행 경험의 질이 동시에 악화될 것입니다.”를 통해 알 수 있다.
③ [C]에서는 ㉣와 관련된 상대측 계획에 대한 수용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추가적인 요구 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 [C]의 “그 정도 계획은 마을의 여건을 고려할 때 받아들일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라 봅니다. 그러면 한옥 개방 시간은 오후 5시까지로 제한해 주십시오.”를 통해 알 수 있다.
⑤ [E]에서는 ㉤에 대한 필요성을 드러내며 상대측의 요구에 대한 수용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
→ [E]의 “대신 관광 산업 발전으로 증대된 세수는 반드시 주민

생활 복지 개선에 사용해 주십시오. 노인 회관 시설 개·보수와 주민 문화 시설 마련에 중점적으로 활용해 주신다면~”을 통해 알 수 있다.

<TIP>

말하기 계획이 실제 말하기 상황에 적용되었는지를 확인하는 문제는 계획한 요소가 실제로 실현되었는지를 따져야 한다. 특히 지문의 특정 부분을 통해서 확인해야 하는 경우, 그 부분에서만 찾을 수 있어야 한다.

7. <답> ②

<정답률> 92%

<정답 풀이>

② ㉠와 ㉡는 사업으로 인해 예상되는 긍정적인 결과를 ㉢는 주민 층의 우려에 대한 해소를 전달함으로써 한옥 개방에 대한 의도를 전달하고 있다.

<오답 풀이>

- ① 논의할 대상을 제한하고 있는 발화가 아니다.
- ③ 상대방이 제기할 수 있는 의견을 가정하고 있지 않다.
- ④ 자신이 파악하지 못한 부분은 없다.
- ⑤ 기대가 충족되지 않을 가능성을 부정하고 있지 않다.

<TIP>

발화의 의도를 잘 파악하려면 담화 상황과 발화자의 대화 목적을 잘 고려해야 한다.

[8~10] 작문

[지문 분석] (가)

○월 ○일

환경 동아리 시간에 ‘PVC가 환경에 끼치는 영향’(특강의 주제)을 주제로 특강을 들었다. 특강을 통해 PVC가 플라스틱의 일종이라는 것과 정말 많은 물건이 PVC 재질로 만들어져 있다(특강의 내용)는 것을 알게 되었다. 심지어 나뿐만 아니라 많은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필통에도 PVC가 사용되었다고 한다. 그런데 그 PVC가 환경 문제의 원인(PVC의 문제점)이 된다고 한다. 내가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었다니! 나 때문에 환경이 오염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다.(특강을 들은 후의 반성과 느낀 점)

그래서 동아리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눠 보니 친구들도 나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특강을 통해 얻은 정보와 깨달음 공유) 환경 오염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무엇인가 해야겠다는 생각에 친구들과 함께 의논을 했다.(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

[지문 확인]

- 갈래: 일기
- 주제: ‘PVC’ 사용을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겠다.
- 특징
 - 자신의 일상을 돌아보고 반성하는 글이다.
 - 정해진 형식 없이 자유롭게 쓰는 글이다.
 - 일상에서 얻을 수 있는 소재로 쓴 글이다.

[지문 분석] (나)

안녕하세요? 저희는 □□ 고등학교 환경 동아리 학생들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글을 쓰게 된 이유는 귀사에서 제조하는 필통에 대해 건의하기 위해서입니다.(사회적 실천을 위한 활동, 건의문)

저희 학교 학생들은 평소 귀사에서 만든 학용품을 자주 구입합니다.(상대에 대한 평소의 인식을 긍정적으로 밝힘) 그런데 귀사의 필통이 몸체는 PVC 재질이고, 지퍼는 철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건의문을 쓰게 된 이유)

저희는 귀사가 필통의 재질을 개선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건의문을 쓴 목적) 귀사뿐 아니라 여러 회사에서 학용품에 PVC 재질의 플라스틱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나라 국민들의 플라스틱 사용량은 세계적으로 많고 그 증가율도 매우 높다고 합니다.(주장에 대한 근거)

플라스틱을 완전히 사용하지 않을 수는 없겠으나, 환경에 끼치는 영향 등을 고려한다면 PVC 사용이라도 줄여 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귀사에서 필통의 재질을 다른 것으로 바꾸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환경을 지키는 데 참여하기를 당부함)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문 확인]

- 갈래: 건의문
- 주제: 필통의 재질을 PVC가 아닌 다른 것으로 교체해 주세요.
- 특징
 - 상대방을 설득하려는 성격이 강하다.
 - 상대방에게 격식과 예의를 갖추어야 한다.
 - 일반적으로 독자가 정해져 있다.

8. <답> ③

<정답률> 92%

<정답 풀이>

③ 예상 독자의 관심사에 대한 분석이 글쓰기에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은 일기가 아니라 건의문이다.

<오답 풀이>

① “(가)는 학생의 일기이고, (나)는 (가)를 쓴 학생이 친구들과 함께 작성한 글의 초고이다.”를 통해 알 수 있다.

② (가)의 글쓴이는 자신이 들은 특강(개인의 경험)의 내용을 바탕으로 환경 오염을 줄이려는 (나)와 같은 건의문을 작성(사회적 문제 해결의 글쓰기)했다.

④ 일반적으로 일기는 글쓴이의 주장과 그에 대한 논거가 제시하지 않는다.

⑤ (나)는 건의문이지만 (가)는 일기이다.

<TIP>

글의 특징을 바탕으로 글쓰기 계획과 목적을 확인하는 문제이다. 평소 문제를 풀 때 접하는 글들의 특징을 반복적으로 정리하면 도움이 된다.

9. <답> ⑤

<정답률> 91%

<정답 풀이>

먼저 <보기>의 핵심을 찾아보자.

초고에서는 건의 내용을 언급한 후 글을 읽어 준 것에 감사하

는 끝인사로 마무리했잖아. 그런데 글의 설득력을 높이려면 건의 내용을 언급한 후에 건의가 받아들여졌을 때 소비자와 기업 양쪽이 얻게 될 이익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면 좋겠어.

⑤ 재질을 개선한다면 소비자는 귀사 제품을 구매하며 환경 보호를 실천했다는 만족감을 얻을 것이고, 귀사는 친환경 기업이라는 신뢰감을 고객에게 주게 되어 매출이 증가할 것입니다.
→ <보기>에서 언급한 조건을 만족하고 있다.

- <오답 풀이>
- ① 글쓴이는 질 좋은 PVC 제품을 기대하고 있지 않다.
 - ② 기업 측의 이익이 나와 있지 않다.
 - ③ 소비자와 기업 측의 이익이 나와 있지 않다.
 - ④ 소비자의 이익은 볼 수 있으나 기업 측의 이익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TIP>
작문에서 주어진 조건에 맞춰 고쳐쓰기를 하려면 조건의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비슷한 유형의 문제를 반복적으로 풀어보는 것이 도움이 된다.

10. <답> ③
<정답률> 86%
<정답 풀이>
③ 증가율이 가장 높았던 것은 체코이다.
<오답 풀이>
① 필통의 지퍼는 몸통과 달이 재활용이 용이한 철이라는 것을 드러낸다면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드러낼 수 있다.
② ‘플라스틱은 가공성이 우수하고 저렴하지만’과 ‘염화 비닐이 주성분인 PVC는 질기고 깨지지 않아 투명 지퍼백, 필통 등에 쓰인다.’를 통해 알 수 있다.
④ “PVC를 부드럽게 하기 위해 첨가하는 프탈레이트는 인체에 유해할 수 있다.”와 ㉔를 통해 알 수 있다.
⑤ ‘식품 용기, 학용품 등에 사용되는 PP나 음료 병 등에 주로 사용되는 PET는 프탈레이트가 첨가되지 않는다.’와 ㉔를 통해 알 수 있다.
<TIP>
자료를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항이다. 평소 자료를 분석하는 문항을 모아서 꾸준히 풀어보는 것이 도움이 된다.

[11~15] 문법

11. <답> ③
<정답률> 71%
<정답 풀이>
먼저 <보기>를 정리해 보자.

- 예전의 돌=현재의 돼지
- 예전의 돌+아지=도야지, 현재는 사라진 말(빈자리가 생김)

- 예전의 도야지=현재의 새끼 돼지, 아기 돼지(빈자리를 구로 채움)

③ 현재 ‘돼지’는 돼지 전체를 이르는 말로 예전의 ‘돌’과 같은 의미이다. <보기>를 보면 예전의 ‘도야지’는 ‘돌의 새끼’를 이르는 말이므로 현재의 ‘돼지’와 예전의 ‘도야지’는 다른 의미임을 알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예전의 ‘도야지’는 ‘돼지의 새끼’이다. 개념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개념에 해당하는 단어가 사라진 것이다. 그리고 사라진 ‘도야지’의 빈자리를 ‘새끼 돼지, 아기 돼지’로 채울 수 있다.
② ‘돌’은 돼지 전체를 이르는 말이고, ‘도야지’는 돼지의 새끼를 이르는 말이므로 ‘돌’을 ‘도야지’의 하의어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④ 예전에는 ‘도야지’라는 말이 있었으므로 빈자리가 없었다.
⑤ 지금은 하나의 고유어 단어가 아닌 ‘새끼 돼지, 아기 돼지’ 등의 구를 만들어 빈자리를 채우고 있다.

<TIP>
이 문제는 예전에 ‘돼지’ 전체를 이르는 ‘돌’에 새끼를 나타내는 단어 ‘-아지’가 결합하여 ‘돼지의 새끼’를 이르는 ‘도야지’라는 말이 만들어졌음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도야지’의 형태는 ‘돼지’로 의미는 ‘돼지’ 전체로 각각 변했음을 알아야 한다. 따라서 현재의 돼지와 같은 의미는 예전의 ‘돌’이며, 예전의 ‘도야지’는 사라졌지만 ‘새끼 돼지, 아기 돼지’ 등의 구로 없어진 도야지의 빈자리를 채우고 있다.

12. <답> ①
<정답률> 82%
<정답 풀이>
ㄱ. 학생 1은 두 번째와 세 번째를 가리키는 단어가 없어서 구를 만들어 빈자리를 채우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어휘적 빈자리를 채우는 첫 번째 방식에 해당한다.
<오답 풀이>
ㄴ. 학생 2는 국어사전에서 ‘꺼병이’라는 고유어를 찾았다고 했으므로 어휘적 빈자리가 없는 경우이다.
ㄷ. 학생 3은 금성의 고유어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어휘적 빈자리가 없는 경우이다.
<TIP>
어휘적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는 개념에 해당하는 단어가 없어야 한다는 것을 생각하면 어렵지 않은 문제이다.

- 13번 문법 이론: 중세 국어의 의문형 종결 어미
- 문장 종결 표현 : 의문문 → 의문사의 여부에 따라 조사나 종결 어미가 달라짐.

의문문 유형	의문 보조사	종결 어미	예
설명 의문문 (의문사 ○)	고/오	-뇨/-료	이 었던 사름고 므슴 마를 니르느뇨
판정 의문문 (의문사 ×)	가/아	-녀/-려	이 뜨리 너히 종가 저므며 늘구미 잇느녀

※ 2인칭 의문문 : 설명 의문문과 판정 의문문의 구별 없이 ‘-

ㄴ다(과거), 는다(현재), -ㄴ다(미래)’ 어미가 사용됨
예) 네 모^ㄴ르^ㄴ던^다, 네 엇^ㄴ테^ㄴ 안^다, 네 信^ㄴ호^ㄴ는^다 아니^ㄴ호^ㄴ는^다,

13. <답> ②

<정답률> 63%

<정답 풀이>

먼저 <보기>를 정리해 보자.

1) 서술어 = 용언의 어간 + 종결 어미

ㄱ. 판정 의문문 : 종결 어미 ‘-너’

ㄴ. 설명 의문문 : 종결 어미 ‘-뇨’

2) 서술어 = 체언 + 보조사

ㄷ. 판정 의문문 : 보조사 ‘가’

ㄹ. 설명 의문문 : 보조사 ‘고’

3) 주어가 2인칭인 경우

ㄴ. -ㄴ다

<보기>의 첫 번째 문장의 현대어 풀이 ‘이 이름이 무엇인가?’는 이름에 대한 정보를 요구하는 설명 의문문이므로 ㄴ과 ㄹ로 범위가 좁혀진다. 또한 서술어에 ‘무엇’이라는 체언이 있으므로 서술어는 ‘체언+보조사’의 구조로 봐야한다. 따라서 1번 문장은 ㄹ에 해당한다.

<보기>의 두 번째 문장의 현대어 풀이 ‘네가 어찌 안 가는가?’는 설명 의문문이지만 주어가 2인칭이므로 ㄴ에 해당한다.

<보기>의 세 번째 문장의 현대어 풀이 ‘그대는 보지 않는가?’도 설명 의문문이지만 주어가 2인칭이므로 ㄴ에 해당한다.

<TIP>

모의고사와 수능에 나오는 국어사 관련 문제는 지문이나 <보기>의 정보만 가지고 해결할 수 있다. 먼저 지문이나 <보기>를 읽고 답이 될 가능성이 있는 선택지들을 골라낸 후 선택지를 줄여나가는 것이 유리하다. 문제를 푸는 요령은 비슷하므로 유사한 유형의 문제를 자주 풀어보는 것이 좋다.

■ 14번 문법 이론: 음운 변동

① 교체

1) 음절의 끝소리 규칙: 국어에서는 음절의 끝에서 ‘ㄱ, ㄴ, ㄷ, ㄹ, ㅁ, ㅂ, ㅇ’의 일곱 개의 자음만 발음된다. 나머지 자음이 음절의 끝에 오면 이 일곱 자음 가운데 하나로 발음되는 현상을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라고 한다.

• 어말 또는 자음으로 시작하는 형태소 앞에서는, 음절의 끝소리가 위의 일곱 자음 중 하나로 발음된다.

예) 부엌[부억], 한낫[한낫], 잎[입], 깎다[깍따], 낮잠[날잠]

•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가 오면, 음절의 끝소리가 다음 음절의 첫소리로 이어져 발음된다.

예) 낮이[나지]

2) 비음화: 끝소리가 파열음인 음절 뒤에 첫소리가 비음인 음절이 연결될 때, 앞 음절의 파열음이 비음으로 발음되는 현상을 비음화라고 한다.

• ‘ㄱ’은 비음 앞에서 [ㅇ]으로 발음된다.

예) 국물[궁물], 낚는다[낭는다], 부엌 문[부영문]

• ‘ㄷ’은 비음 앞에서 [ㄴ]으로 발음된다.

예) 단는[단는], 걸모양[견모양]

• ‘ㅂ’은 비음 앞에서 [ㅁ]으로 발음된다.

예) 밥물[밤물], 앞니[암니]

3) 유음화: ‘ㄴ’이 유음 ‘ㄹ’의 앞이나 뒤에 올 때 [ㄹ]로 발음되는 현상을 유음화라고 한다.

• 음절의 끝소리 ‘ㄷ’ 뒤에 음절의 첫소리 ‘ㄴ’이 올 때 ‘ㄴ’이 [ㄹ]로 발음된다.

예) 칼날[칼랄], 물난리[물랄리], 훑는[훑는 → 훑른]

• 음절의 끝소리 ‘ㄴ’ 뒤에 음절의 첫소리 ‘ㄹ’이 오면 ‘ㄴ’이 [ㄹ]로 발음된다.

예) 신라[실라], 논리[놀리]

4) 구개음화: 끝소리가 ‘ㄷ, ㅌ’인 형태소가 모음 ‘ㅣ’나 반모음 ‘ㅣㅗ’로 시작되는 형식 형태소와 만나 ‘ㄷ, ㅌ’이 [ㅈ, ㅊ]으로 발음되는 현상을 구개음화라고 한다.

• 형태소 끝소리의 ‘ㄷ’이 모음 ‘ㅣ’나 반모음 ‘ㅣㅗ’로 시작되는 형식 형태소와 결합하면 [ㅈ]으로 발음된다.

예) 해돋이[해도지], 굳이[구지]

• 형태소 끝소리의 ‘ㅌ’이 모음 ‘ㅣ’나 반모음 ‘ㅣㅗ’로 시작되는 형식 형태소와 결합하면 [ㅊ]으로 발음된다.

예) 같이[가치], 발이[바치]

5) 된소리되기: 예사소리가 된소리로 발음되는 현상을 된소리되기라고 한다.

• ‘ㄱ, ㄷ, ㅂ, ㅅ, ㅈ’은 ‘ㄱ, ㄷ, ㅂ’ 뒤에서 된소리로 발음된다.

예) 입고[입꼬], 묻다[묻따], 국밥[국빱], 박사[박싸], 값지다[갑쩌다]

• 용언이 활용할 때 어미의 첫소리 ‘ㄱ, ㄷ, ㅂ, ㅅ’은 어간의 끝소리 ‘ㄴ, ㄹ’ 뒤에서 된소리로 발음된다.

예) 신고[신포], 넘다[넙따]

• 두 어절 이상이 연결되는 경우에도 일어난다. 그래서 관형사형 ‘-(으)ㄴ’ 뒤에 연결되는 ‘ㄱ, ㄷ, ㅂ, ㅅ, ㅈ’은 된소리로 발음한다.

예) 할 것을[할꺼슬], 갈 데가[갈떼가], 할 바를[할빠를], 할 수는[할쑤는], 할 적에[할쩌게]

② 축약

1) 개념: 두 개의 음운이 합쳐져서 하나의 음운으로 줄어드는 현상을 음운의 축약이라고 한다.

2) 종류

• 자음 ‘ㄱ, ㄷ, ㅂ, ㅅ’이 ‘ㅎ’과 만나 거센소리 [ㅋ, ㅌ, ㅍ, ㅊ]으로 발음되는 현상을 자음 축약이라 한다.

예) 종고 → [조코], 많다 → [만타], 업히다 → [어피다], 짓히다 → [저치다]

• 모음 ‘ㅣ’나 ‘ㅗ/ㅜ’가 다른 모음과 결합하여 이중 모음이 되는 것도 축약이라 한다. 이때 모음 ‘ㅣ’나 ‘ㅗ/ㅜ’는 반모음으로 바뀐다.

예) 가리- + -어 → 가려, 두- + -었다 → 뵈다

③ 탈락

1) 개념: 두 개의 자음이 이어지거나 두 개의 모음이 이어질 때 둘 중 하나가 탈락되는 현상을 음운의 탈락이라고 한다.

2) 자음 탈락

- 자음 ‘ㄹ’로 끝나는 용언 어간이 몇몇 어미와 결합할 때 ‘ㄹ’이 탈락된다.

예) 울- + -는 → 우는

- 자음 ‘ㅎ’으로 끝나는 어간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나 접미사와 결합할 때 ‘ㅎ’이 탈락된다.

예) 좋아[조아], 쌓이다[싸이다]

- 음절의 끝소리에 자음 두 개가 오면 하나는 탈락되고 나머지 하나만 발음이 된다.

예) 닭[닥], 삶[삼], 밭고[밥꼬], 활다[할따]

3) 모음 탈락

- 모음 ‘ㅡ’로 끝나는 어간이 모음 ‘ㅏ/ㅑ’로 시작하는 어미와 결합할 때 ‘ㅡ’가 탈락된다.

예) 쓰- + -어라 → 써라

- 모음 ‘ㅏ/ㅑ’로 끝나는 어간이 모음 ‘ㅓ/ㅕ’로 시작하는 어미와 결합할 때 ‘ㅏ/ㅑ’가 탈락된다.

예) 가- + -아서 → 가서

④ 첨가

1) 개념: 두 형태소가 결합될 때 그 사이에 음운이 첨가되는 경우를 말한다.

2) 종류

- 두 형태소가 결합할 때 사잇소리가 첨가되어 뒤 형태소의 첫 소리가 된소리로 발음되는 경우가 있다.

예) 밤 + 길 → 밤길[밤깁], 초 + 불 → 촛불[초뿔/촌뿔]

- 모음으로 끝나는 형태소가 ‘ㄴ, ㄹ’으로 시작하는 형태소와 결합할 때 사잇소리가

첨가되어 ‘ㄴ’으로 발음되는 경우가 있다.

예) 코 + 날 → 콧날[콘날→곤날], 이 + 몸 → 잇몸[인몸→인똥]

- 자음으로 끝나는 형태소가 ‘ㅣ’나 반모음 ‘ㅣ~’로 시작하는 형태소와 결합할 때 ‘ㄴ’이 첨가되는 경우가 있다.

예) 맨- + 입 → 맨입[맨닙], 한- + 여름 → 한여름[한너름]

14. <답> ④

<정답률> 56%

<정답풀이>

먼저 <보기>를 정리해 보자.

- ㉠ 풀잎[폴립] : ㄴ첨가, 유음화, 음절의 끝소리 현상
- ㉡ 읊네[음네] : 자음군 단순화, 음절의 끝소리 현상, 비음화
- ㉢ 벼훅이[벼훅치] : 구개음화

④ ㉠은 ㄴ첨가로 음운의 개수가 하나 늘었지만 ㉢은 음운의 개수에 변화가 없다.

<오답 풀이>

① ㉠은 ‘ㄴ첨가, 유음화, 음절의 끝소리 현상’이 일어났고, ㉡은 ‘자음군 단순화, 음절의 끝소리 현상, 비음화’가 일어났으므로 ㉠과 ㉡은 각각 음운 변동이 세 번씩 일어났다.

② ㉠에는 유음화가 일어나 같은 ‘ㄹ’이 되었고 ㉡에는 비음화가 일어나 같은 ‘비음’이 되었으므로 ㉠과 ㉡은 각각 조음 방법이

같아졌다.

③ ㉠에서 첨가된 음운은 ‘ㄴ’이고, ㉡에서 탈락한 음운은 ‘ㄹ’이다.

⑤ ㉠은 유음인 ‘ㄹ’로 인해 유음화가 일어난 것이고, ㉢은 어간 ‘벼-’에 결합한 ‘ㅣ’ 모음 때문에 구개음화가 일어난 것이다.

<TIP>

이 문제는 음운 변동을 이해하고 구분할 수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문제이다. 음운 변동은 표준 발음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유리하며 기출 문제를 통해 문제의 유형을 익히는 것이 필요하다.

■ 15번 문법 이론: 피동과 사동

	피동 표현	사동 표현
의미	주어가 남에 의해 동작을 당하게 되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 ↔ 능동 표현	주어가 남에게 동작을 하도록 시키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 ↔ 주동 표현
단형 표현 (형태적)	피동 접미사 ‘-이-, -히-, -리-, -기-’가 결합됨. 접미사 ‘-되다, -받다, -당하다’로 실현되기도 함. 예) 사슴이 사냥꾼에게 잡힌다. 이것은 이해되지 않는 현상이다.	사동 접미사 ‘-이-, -히-, -리-, -기-, -우-, -구-, -추-’가 결합됨. 접미사 ‘-시키다’로 실현되기도 함. 예) 엄마가 아기에게 밥을 먹였다. 철수와 영희를 화해시켜주세요.
장형 표현 (통사적)	‘-어지다’나 ‘-게 되다’가 결합됨. 예) 그 말이 믿어지지 않는다. 친구 소개로 그를 알게 되었다.	‘-게 하다’가 결합됨. 예) 민수가 은영이를 웃게 한다.

- 직접 사동과 간접 사동 : 직접 사동은 사동의 주체가 행위에 참여하는 것이고, 간접 사동은 참여하지 않는 것(가령, 말로만 시킨 것)임.

예) 엄마가 갓난아기에게 젖을 먹인다.(직접 사동)

엄마가 아이에게 책을 읽힌다.(간접 사동)

- 피동 접미사 : ‘-이-, -히-, -리-, -기-’, ‘-되다, -받다, -당하다’
- 사동 접미사 : ‘-이-, -히-, -리-, -기-, -우-, -구-, -추-’, ‘-시키다’
- 장형 피동 : ‘-어지다, -게 되다’
- 장형 사동 : ‘-게 하다’
- 직접 사동과 간접 사동 : 사동의 주체가 행위에 참여하는지 여부에 따라 구분

15. <답> ⑤

<정답률> 60%

<정답 풀이>

먼저 <보기>를 정리해 보자.

<주의: “동음이의어나 다의어의 의미에도 유의해야 합니다.”라는 선생님의 설명>

- 같다 : 어떤 직책에 있는 사람을 다른 사람으로 바꾸다.

- 깎다 : 값이나 금액을 낮추어서 줄이다.
- 묻다 : 가루, 풀, 물 따위가 그보다 큰 다른 물체에 들러붙거나 흔적이 남게 되다.
- 물다 : 윗니와 아랫니 사이에 끼운 상태로 상처가 날 만큼 세게 누르다.
- 쓸다 : 비로 쓰레기 따위를 밀어내거나 한데 모아서 버리다.

㉠ ㉡: 큰 마당의 눈이 빗자루에 쓸렸다. ㉢: 내 동생에게 거실 바닥만 쓸렸다.

→ ㉠은 눈이 쓸림을 당하고 있으므로 ‘쓸다’의 피동사이고, ㉢은 거실을 쓸게 만들었으므로 ‘쓸다’의 사동사이다.

<오답 풀이>

① ㉠: 학생회 임원이 새 친구로 갈렸다. ㉣: 삼촌이 형에게 그 텃밭을 갈렸다.

→ ㉠의 ‘갈다’의 의미는 <보기>에서 제시한 국어사전의 의미와 같지만 ㉣의 ‘갈다’의 의미는 ‘쟁기나 트랙터 따위의 농기구나 농기계로 땅을 파서 뒤집다.’로 <보기>에서 제시한 의미가 아니다.

② ㉠: 용돈이 이달에 만 원이나 깎였다. ㉣: 나는 저번 실수로 점수를 깎였다.

→ ㉠은 용돈이 깎임을 당했고, ㉣은 점수가 깎임을 당했으므로 모두 ‘묻다’의 사동사이다.

③ ㉠: 내 친구는 가래떡에 꿀만 묻혔다. ㉣: 누나는 붓에 먹물을 듬뿍 묻혔다.

→ ㉠은 꿀을 묻게 만들고, ㉣은 붓에 먹물이 묻게 만들었으므로 모두 ‘묻다’의 사동사이다.

④ ㉠: 아빠가 아이 입에 사탕을 물렸다. ㉣: 큰형이 동네 개에게 발을 물렸다.

→ ㉠은 아이가 사탕을 물게 만들었으므로 사동사이고, ㉣은 개에게 물림을 당한 것으로 피동사이다.

<TIP>

<보기>에서 선생님의 설명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정보이다. <보기>의 내용을 무시하고 자신이 알고 있는 피동과 사동의 개념만으로 문제를 풀면 오답을 고를 확률이 매우 높다. 따라서 <보기>의 정보를 꼼꼼하게 확인한 후에 문제를 푸는 것이 중요하다.

[16~18] 문학-현대 소설(박경리, ‘토지’)

[지문 분석]

[앞부분 줄거리] 조준구(부정적 인물)와 아내 홍 씨(부정적 인물)는 서희(주인공)가 물려받아야 할 최 참판가의 재산을 가로채고, 하인 삼수(부정적 인물)를 내세워 마을 사람들을 착취한다. 한편, 윤보는 의병(시대적 배경을 드러내는 소재)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최 참판가(조준구와 홍씨) 습격을 준비하는데 삼수가 찾아온다.

“아무리 그리 시치미를 떼 쌓아도(윤보가 조준구를 습격할 계획을 세운 사실) 알 만치는 나도 알고 있으니께요. 머 내(삼수)가 혜방을 놓자고 찾아온 것도 아니겠고, 나는 나대로 생각이 있어서 온 긴테(의도가 있어서 직접 온 것임) 너무 그러지 마소. (방언을 통한 현장감, 사실성 제시) 한마디로 딱 찼라서 말하겠

소. 왜놈들하고 한통속인 조가 놈(조준구)을 먼저 치고 시작하라 그 말이오. 고방(이전에, 집안에 보관하기 어려운 각종 물품을 넣어 두기 위해서 집 바깥에 따로 만들어 두는 집채를 이르던 말)에는 곡식이 썩을 만큼 쌓여 있고 안팎으로 쌓인 기이 재물인데 큰일을 하자 카른 빈손으로 우찌 하겠소. 그러니 왜놈과 한통속인 조가부터 치고 보든 뽕 목고 알 목는 거 아니겠소.”(자신의 말대로 하면 조가도 제거하고 그의 재물도 차지할 수 있음을 알리려는 삼수의 의도가 반영된 것이다. 기회주의자적 인물) (일석이조, 일거양득)

“야아가 참 제정신이 아니구마는.”(삼수가 조준구의 하인이기 때문이다.)

“하기사 전력이 있어니께 나를 믿지 않는 것도 무리는 아니겠소. 하지마는 두고 보든 알 거 아니오?”

“야, 야 정신 산란하다. 나(윤보)는 원체 입이 무겁고 또 초록은 동색(삼수와 조준구는 모두 나쁜 인물이라는 것이다.)이더라도 내 안 들은 거로 해 둘 기니 어서 돌아가거라. 공연히 신세 망칠라.”

윤보는 삼수 등을 민다.(삼수를 쫓아내려는 윤보, 삼수의 제안을 거절하는 윤보)

“이거 놓으소. 누가 안 가까 바 이려요? 지내 놓고 보든 알 기니께요. 내가 머 염탐이라도 하러 온 줄 아요?(진심) 흥, 그랬을 양이든 벌써 조가 놈한테 동네 소문 고해바쳤일 기고 읍내서 순사가 와도 몇 놈 왔일 거 아니오.”(삼수는 윤보의 계획을 알고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회유하고 있으며, 자신도 윤보와 같은 뜻을 품고 있음을 알리려는 의도가 반영된 것이다.)

큰소리로 지껄이며 삼수는 언덕을 내려간다.

‘벌어먹을, 이거 다 된 죽에 코 빠지는 거(관용적 표현)아닌지 모르겠네. 날을 다가야겠다.(앞당겨야겠다.-윤보의 생각)’

삼수(기회주의적, 이기적 인물)가 왔다 간 다음 날 밤, 자정이 넘었다. 칠혹의 밤을 타고 덩어리 같은 침묵(비유적 표현으로 긴장감을 제시하고 있다.)을 지키며 타작마당에 장정들(윤보의 조력자들)이 모여들었다. 마을에서는 개들이 짖는다. 불은 켜지 않았지만 집집에선 인적기가 난다. 언덕 위의 최 참판댁은 어둠에 묻혀 위엄에 찬 그 형태는 보이지 않는다. 타작마당에서는 윤보의 그 우렁우렁한 목소리가 평소보다 얇게 울리고, 이윽고 햇불이 한 개 두 개 또 세 개, 계속하여 늘어나고 그 햇불은 움직이기 시작한다.(현재형으로 습격의 상황을 생생함을 보여준다.)

[중략 부분 줄거리] 윤보 일행이 습격하자 조준구와 홍 씨(부정적 인물)는 사당 마루 밑에 숨어 있다가 삼수(기회주의적 태도)의 도움을 받는다. 윤보 일행이 떠나고 날이 밝았다.

“서희 이, 이년! 썩 나오지 못할까!”

나오길 기다릴 홍 씨(부정적 인물, 조준구의 아내)는 아니다. 방문을 박차고 들어가서 서희를 끌어 일으킨다.

“네년 소행인 줄 뉘 모를 줄 알았더냐?(홍 씨는 서희가 자신을 습격했던 무리와 공모했다고 몰아간다.) 자아! 내 왔다! 이제 죽여 보아라! 화적 놈(윤보 일행) 불러들일 것 없이!”

나오지 않는 목청을 뽐으며, 거품이 입가에 묻어 나온다.

“자아! 자아! 못 죽이겠니?”

손이 뽀 위로 날았다.(홍 씨의 횡포) 앞가슴을 잡고 와락와락(음성상징어로 인물 간의 대립을 나타낸다.) 흔들어댄다. 서희

얼굴이 흙빛으로 변한다.(인물의 심리 상태를 간접 제시 : 충격을 받음) 울고 있던 봉순이,
“왜 이러시오!”
달려들어 서희 몸을 잡아당기니(서희를 도우려는 봉순의 태도) 실 떨어지는 소리와 함께 홍 씨 손에 옷고름이 남는다.(인물간의 대립)
“감히 누굴! 감히!”(서희의 말)
하다가 별안간 방에서 뛰쳐나간다.
맨발로 연못(수능특강 수록부분에서 서희 어머니의 환영이 보이던 연못)을 향해 몸을 날린다. 그(서희)는 죽을 생각을 했던 것이다.
“애기씨!”
울부짖으며 봉순이 뒤쫓아 간다.
“죽어라! 죽어! 잘 생각했어! 어차피 너는 산목숨은 아니란 말이야! 죽고 남지 못할 거란 말이야!”
고래고래 소리를 지른다. 서희는 연못가에서 걸음을 뚝 멈춘다.(생각의 변화가 있을 것임을 행동으로 보여줌) 돌아본다. 흙빛 얼굴에 웃음이 지나간다.(서희의 심리 상태가 바뀐 것을 알 수 있다.)
“내가 왜 죽지? 누구 좋아하라고 죽는단 말이냐?”(심리 변화) 나직한 음성이다. 홍 씨 눈을 똑바로 주시한다.(심리 변화로 인한 태도 변화)
“사람 영악한 것은 범보다 더 무섭다는 말 못 들으셨소?”(서희가 자신이 더 이상 홍 씨의 횡포에 휘둘리는 존재가 되지 않을 것임을 나타내는 것이다. 홍 씨에 대한 선전포고) 여전히 나직한 음성이다.
“무서우면 어떻게 무서워! 우리 내외(조준구 부부)한테 비상(독약)을 먹이겠다 그 말이냐?”
아이고! 아이고! 눈물도 안 나오는 헛울음을 울더니 이번에는 봉순에게 달려들어 머리끄덩이를 꺼두르고 한 소동을 피운다. 읊내서 헌병, 순사(시대적 배경을 나타내는 소재)들이 왔다는 말에 홍 씨는 겨우 본채로 돌아갔다.
서희는 찢겨진 저고리를 내려다본다.
“길상(이후 서희의 남편이 되는 인물) 이 놈이 날 죽으라고 내 버리고 갔다.”(서운함과 분노)
눈이 부어오른 봉순이는,
“마지막까지 남아서 찾았지마는(조가 부부를 찾았다는 것임) 사당 마릿장 밑에 숨은 줄이야 우, 우찌 으흐흐흐.”
되풀이 입술을 떨면서 서희는 말했다.
“길상(이후 서희의 남편이 되는 인물)이 놈이 날 죽으라고 내 버리고 갔다.”
달려온 헌병들에게 맨 먼저 당한 것은 삼수다.
“나, 나으리! 이, 이기이 우찌 된 영문입니까!”
헌병이 총대를 들이대자 겁에 질린(심리 상태 직접 제시) 삼수는 그러나 무엇인가 잘못되었거니 믿는 구석이 있어서(심리 직접 제시) 조준구를 향해 도움을 청하였다.
“이놈! 이 찢어 죽일 놈 같으나라구!”
무섭게 눈을 부릅뜬 조준구를 바라본 삼수 얼굴은 일순 백지장으로 변한다.(심리 상태 간접 제시)
“예? 머, 머, 머라 켜십니까?”
“이놈! 네 죄를 몰라 하는 말이냐? 간밤에 감수한 생각을 하면 네놈을 내 손으로 타살할 것이로되 으음, 능지처참할 놈 같으니

라구. 이놈! 어디 한번 죽어 봐라!”
“나, 나으리! 꾸, 꿈을 꾸시는 겁니까? 이, 이 목심을 건지 디린 이, 이 삼수 놈을 말입니다!”(전날 조준구를 도운 일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조준구는 바로 저놈이 폭도의 앞잡이었다고 이미 한 말을 다시 강조할 뿐이다.(조준구는 삼수가 폭도의 앞잡이었다고 생각한다.) 물론 이 경우 폭도란 의병을 일컫은 것이다.

■ 핵심 정리

- 갈래 : 장편 소설, 대하소설
- 성격 : 사실적
- 배경 : ① 시간 - 1897년~1945년
② 공간 - 구한말 : 하동 평사리 → 일제 강점기 : 간도 → 3·1운동 후 광복 : 국내와 만주, 러시아 등 해외
- 시점 :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
- 주제 : 우리 민족의 애환과 강인함
일제 강점기를 살아간 우리 민족의 애환과 굴곡진 삶에서 다시 일어나는 강인함
- 특징
① 민족의 모습을 사실적으로 드러냄.
② 사투리, 속담, 격언 등이 풍부하게 사용됨.
③ 한 집안의 몰락과 재기의 내용을 민족사의 흐름과 맥을 같이 하여 전개함.
④ 시간에 흐름에 따라 공간 배경이 확장되며 사건이 전개됨
⑤ 무수한 등장인물의 각기 다른 삶이 다양한 갈등 양상으로 엮여 제시됨.

이 작품은 한국 근대사 속에서 삶의 터전인 ‘토지’를 중심으로 구한말 지주 가문의 후손인 최서희와 그 주변 인물, 그리고 민중들의 삶을 그린 대하 장편 소설이다. 진주 부근 하동 평사리에서 만주, 그리고 다시 한반도 등으로 이어지는 광범위한 공간을 무대로 다양한 인물들의 삶이 사실적으로 그려지고 있는데, 특히 감칠맛 나는 토속어의 활용이 돋보인다. 이 작품에서 ‘토지’는 삶의 터전이자 생계와 신분 질서의 현장, 그리고 국토의 상징적 의미를 지니게 되는데, 작가는 이러한 토지의 의미를 통해 국권의 상실과 회복이라는 민족의 근대사를 담고 있다.

■ 인물

- ① 서희 : 최 참판 가문의 혈통을 잇는 인물. 독립적이고 강인한 성격으로 자라나 빼앗긴 토지를 되찾는 올곧은 의지를 지닌 전통적인 한국의 여성
- ② 길상 : 최 참판 집안의 노비로서 충직한 인물. 집안을 지키고 자 하는 서희와 결혼하고 독립운동에 뛰어듦.
- ③ 구천(김환) : 윤씨 부인이 김개주에게 겁탈당하여 낳은 아들
- ④ 최치수 : 최 참판 댁 당주. 병약하고 예민한 성격의 소유자로, 몰락하는 양반 계층의 폐쇄적인 모습을 잘 보여 주는 인물
- ⑤ 윤씨 부인 : 최 참판 댁 안주인이면서 최치수의 어머니이자 서희의 할머니
- ⑥ 별당 아씨 : 최치수의 부인이자 서희의 생모. 나중에 구천과 도망침.
- ⑦ 조준구 : 이 작품에서 가장 간악한 인물. 간교하고 음험하며

교만함.

⑧ 봉순 : 서희의 몸종, 서희와 친동기처럼 지내다 후에 기생 기화로 살아감

⑨ 삼수 : 약자에게 강하고 강자에게 약한 성격. 조준구에게 실세가 넘어가자 조준구의 편에 붙어 서희를 폄박한다.

⑩ 윤보 : 묵수, 곧고 직설적인 성격. 혈혈단신으로 방랑하며 자유롭게 일한다. 사리분별이 정확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사나이

■ 전체 줄거리

[제1부]

1897년 8월 15일부터 1908년 5월까지가 배경이다. 이 무렵 러일 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을사늑약을 체결했고, 전국 각지에서는 의병 운동이 일어났다. 경남 하동 평사리 최 참판 가문의 안방마님인 윤씨 부인은 동학 접주 김개주에게 겁탈당해 김환(구천)을 낳는다. 김환은 신분을 숨기고 최 참판 댁 하인으로 있다가, 이부(異父) 형 최치수의 아내인 별당 아씨와 사랑에 빠져 도주한다. 최치수는 그의 재산을 탐낸 하녀 귀녀와 몰락 양반인 김평산 등에 의해 교살되고, 이 일이 발각되어 주모자들은 처형된다. 최 참판의 먼 친척인 조준구는 콜레라 때문에 윤씨 부인이 세상을 떠나자 최 참판의 재산을 독차지한다. 최 참판의 외동딸 서희는 조준구에게 맞았던 마을 사람들과 함께 용정으로 이주한다.

[제2부]

1911년 5월 용정촌의 대화재로 시작되어 1917년 여름까지가 배경이다. 용정에 정착한 서희는 할머니에게 몰래 받은 금괴를 밀천으로 공 노인의 도움을 받아 대상(大商)으로 성장한다. 그녀는 독립 운동가의 아들이자 유부남인 이상현과의 은밀한 사랑을 정리한다. 그리고 어려서부터 의지해 온 하인 길상과 결혼해 윤국, 한국을 낳아 대를 잇지만, 신분의 벽을 쉽게 넘어서지 못해 갈등한다. 서희를 따라온 김영팔, 이용 등은 외지 정착에 어려움을 겪는데, 특히 이용은 사랑하는 월선의 죽음, 재물에 집착하는 임이네의 탐욕과 질투를 묵묵히 견디어 낸다. 김평산의 아들이자 일본 밀정이 된 김두수와 길상으로 대표되는 독립 운동가들의 대립은 새로운 갈등을 낳는다.

[제3부]

1919년 3·1 운동 이후부터 1929년 원산 총파업, 광주 학생 운동 무렵까지가 배경이다. 길상을 간도에 남겨둔 채 귀국한 서희는 조준구에 대한 복수를 마무리 짓고, 잃어버린 땅을 되찾은 뒤에도 허무감에서 빠져나오지 못한다. 한편 김환을 중심으로 한 지리산 의병 활동, 송관수가 주축이 된 형평사 운동, 간도와 만주로 망명한 사람들의 생활, 이상현을 중심으로 한 지식인들의 삶이 확대되어 전개된다. 기생으로 전락한 기화(봉순)는 이상현과의 사이에서 딸 양현을 낳지만 아편 중독자가 되어 결국 자살한다. 또한 이용, 임이네 등이 병으로 죽으며, 김환은 고문 끝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등 전반부의 주요 인물이 세상을 떠나면서 작품은 세대교체를 맞는다.

[제4부]

1930년부터 1937년 중일 전쟁과 1938년 난징 [南京] 학살에 이르는 시기가 배경이다. 무대는 서울, 동경, 만주에서 하동, 진주, 지리산까지 더욱 확대되고, 서사의 중심은 더욱 다원화된다. 일제 말의 정치적·경제적 억압과 혼란상이 다양한 인물의 삶을 통해 증언된다. 특히 조선과 일본의 역사와 문화, 예술, 사상, 민

족성 등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이 폭넓게 제시된다. 한국과 윤국의 성장, 길상의 출옥과 귀향, 군자금 강탈 사건 이후 만주로 도피하는 송관수의 신분적 갈등, 임 역관의 딸 명희의 이혼과 새로운 삶, 유인실과 일본인 오가다의 사랑, 인실의 도피와 변신 등이 중점적으로 그려진다.

[제5부]

1940년 8월부터 1945년 8월까지가 배경이다. 서희는 주치의 박 의사가 자신에 대한 사랑으로 자살하자 충격을 받는다. 그녀는 양현과 영광의 슬픈 사랑을 지켜보면서 참된 사랑의 의미를 깨닫는다. 그리고 인실과 오가다의 재회, 길상의 관음 탕화 완성, 소목장이가 된 조병수와 아버지 조준구의 처절한 죽음 등 평사리 사람들의 후일담이 이어진다. 또한 해도사와 소지감등을 중심으로 한 지리산 모임, 예비 검속령에 의한 길상의 재구속, 일본인의 밀정이 된 우개동의 행패 등을 통해 일제 강점기 말의 현실이 생생하게 그려진다. 그러다가 1945년 8월 15일, 서희가 일본의 항복 소식을 듣는 것으로 대단원의 막이 내린다.

■ 이해와 감상 1

이 작품은 구한말부터 해방까지 한 세기에 이르는 역사의 변화 속에서 평사리 최 참판댁 일가를 중심으로 많은 삶의 군상들의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다. 이 작품의 서사적 골격은 4대에 걸친 최 참판댁 일가의 인물들이 종적으로 배치되어 있으며, 이와 관련한 주변 인물들이 다양하게 등장하면서 시대적 삶의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그리고 공간적 무대가 평사리에서 간도로, 그리고 해외에까지 확대되고 있는데, 이러한 공간을 통해 한 시대의 변화를 실감나게 전달해 주고 있다.

이 작품에서는 봉건적 가족 제도의 해체와 계급의 해체, 서구 문물의 수용과 식민지 지배, 그리고 간도 생활과 민족 이동의 문제 등을 다양한 인물들의 삶 속에서 녹여 내고 있는데, 이러한 삶의 전체적인 모습은 그 나름의 역사성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작가는 최 참판댁의 4대에 걸친 모습과 다양한 인물 군상, 다양한 공간 등을 통해 한국 근·현대사를 바라보는 역사 인식을 장대하게 펼쳐고 있는 것이다.

■ 토지의 문학사적 의의

- ① 구한말의 몰락으로부터 일제 강점기에 이르기까지 최 씨 일가의 가족사를 중심으로 우리 민족의 고난사를 생생하게 형상화함
- ② 재물과 애욕으로 갈등하며 저마다 한스러운 삶을 살면서도 그 한을 원동력으로 이어 나가는 다양한 인물들을 입체적으로 그려 냄
- ③ 언어 예술 차원에서 사투리와 속담, 격언 등을 효과적으로 사용하여 한국어가 지닌 미적 특질을 최대한 살려 냄.

■ ‘토지’에 담긴 다의성

- ① 민족적 삶의 원형으로서의 ‘토지’ : 전통적으로 농경 민족인 우리 민족에게 토지는 모든 생산과 경제활동의 기반이 되는 소중한 대상임. 토지는 평사리 마을 사람들에게 보존되어야 할 삶의 터전으로 형상화됨.
- ② 삶의 현장인 ‘토지’ : 토지는 농민들이 삶의 영위하는 터전이 되며, 최 씨 집안을 중심으로 볼 때 상실했던 토지의 회복은 삶의 터전을 회복하는 것과 같음.

③ 국토를 상징하는 ‘토지’ : 토지는 민족 전체로 볼 때 국토를 의미함. 국권의 상실이라는 것은 정치적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땅의 상실로도 볼 수 있음. 서희 일가가 토지를 잃고 만주로 이주하는 것은 곧 국권의 상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기도 함.

16. <답> ⑤

<정답률> 64%

<정답 풀이>

⑤ [A]는 시간적 배경을 통해 장면의 분위기를 드러내고, [B]는 공간적 배경의 변화를 통해 인물 간 대립의 원인을 드러낸다.
→ [A]는 자정이라는 시간적 배경과 긴장감이 고조되는 분위기를 드러내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B]에서 인물들이 대립하는 공간이 ‘방’에서 연못으로 배경이 바뀐 것은 맞지만 공간의 이동을 통해 대립의 원인을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오답 풀이>

① [A]는 비유적 표현을 활용하여 인물의 은밀한 행동 양상을 드러낸다.

→ ‘칠혹의 밤을 타고 덩어리 같은 침묵을 지키며 타작마당에 장정들이 모여들었다.’를 통해 알 수 있다.

② [B]는 음성 상징어를 활용하여 행동의 격렬함을 강조한다.

→ ‘앞가슴을 잡고 와락와락 흔들어 댄다.’를 통해 알 수 있다.

③ [A]는 장면에 대한 관찰을 중심으로 서술하고, [B]에는 인물의 내면에 대한 직접적 서술이 나타난다.

→ [A]는 습격을 하는 장면을 비유와 감각적 표현, 현재형 서술을 통해 생동감 있게 표현하고 있으며, [B]에서는 ‘그는 죽을 생각을 했던 것이다.’에서 인물의 내면이 직접 서술되어 있다.

④ [A]는 시제가 과거형에서 현재형으로 바뀌면서 장면에 긴장감을 더하고, [B]는 현재형 진술을 활용하여 인물 간 갈등을 더욱 생생하게 전달한다.

→ [A]는 ‘자정이 넘었다.’와 ‘장정들이 모여들었다.’ 이후부터 현재형으로 바뀌어 긴장감을 생생하게 전달하고 있다. [B]는 갈등의 상황을 현재형으로 진술하여 생동감 있게 전달하고 있다.

<TIP>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은 장면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를 묻는 것이다. 많은 문학 문제가 작가와 독자의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묻는 문제이다. 작가는 [A]처럼 분위기만으로도 독자에게 긴장감을 전달할 수도 있고 [B]와 같이 인물 간의 대립을 말과 행동으로 생생하게 전달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자.

17. <답> ③

<정답률> 73%

<정답 풀이>

③ ㉔ : 홍 씨는 자신을 습격했던 무리를 ‘화적 놈’이라 부르며 서희가 그들과 공모했다고 몰아가고 있다.

→ 중략 부분 줄거리와 “네년 소행인 줄 뉘 모를 줄 알았더냐? 자야! 내 왔다! 이제 죽여 보아라! 화적 놈 불러들일 것 없이!”를 통해 알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㉕은 삼수는 자신의 말대로 하면 왜놈과 한통속인 ‘조가’도 제거할 수 있고, 의병자금도 확보할 수 있다는 의미로 말을 한 것이다. 윤보의 계획을 숨길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은 적

절하지 않다.

② 삼수가 윤보의 계획을 알고 있는 것은 맞지만 그것을 동네에 알리겠다고 협박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④ “사람 영악한 것은 범보다 더 무섭다는 말 못 들으셨소?”라는 말은 홍 씨에게 자신의 영악함이 범보다 무서울 수 있다고 경고하는 것이다.

⑤ “이놈! 네 죄를 몰라 하는 말이나? 간밤에 감수한 생각을 하면 네놈을 내 손으로 타살할 것이로되 으음, 능지처참할 놈 같으니라구. 이놈! 어디 한번 죽어 봐라!”를 통해 준구가 삼수에게 매우 화가 나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뒤에 ‘그러나 조준구는 바로 저놈이 폭도의 앞잡이었다고 이미 한 말을 다시 강조할 뿐이다. 물론 이 경우 폭도란 의병을 일컬은 것이다.’를 보면 삼수가 의병의 앞잡이라고 말을 하는 것을 보면 준구는 삼수가 의병과 관련이 있어서 화를 내고 있는 것이지 삼수가 자신을 습격해서 분노하고 있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TIP>

인물의 말과 행동에 담긴 의미를 추론하기 위해서는 앞부분 줄거리, 중략 줄거리, 뒷부분 줄거리까지 주어진 내용은 모두 읽어야 한다. 또한 많은 문학 문제들이 다루는 것은 갈등이다. 갈등의 원인과 갈등을 표출하는 인물의 말과 행동들은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주의를 기울이며 읽는 습관이 필요하다.

18. <답> ③

<정답률> 84%

<정답 풀이>

③ 봉순이가 달려들어 서희 몸을 잡아당기는 것으로 보아, 이전까지 비교적 안정적이었던 신분 질서가 흔들리며 봉순이와 서희의 협력 관계가 약화되고 있군.

→ 봉순이는 홍 씨의 횡포로부터 서희를 구하기 위해 서희의 몸을 잡아당기는 것이다.

<오답 풀이>

① 삼수의 제안을 거절하는 것은 협력 관계를 거부한 것으로 보는 것은 적절하다.

② “왜놈과 한통속인 조가부터 치고 보문~”과 중략 부분 줄거리를 보면 조가는 친일 세력을 대표하는 인물로 윤보 일행과 대립하고 있다고 보는 것은 적절하다.

④ 연못에 몸을 던지려던 서희가 홍 씨의 눈을 똑바로 보며 경고의 말을 했으나 홍 씨는 “무서우면 어떻게 무서워! 우리 내외한테 비상을 먹이겠다 그 말이나?”라는 말과 함께 봉순이에게 달려드는 장면을 통해 대립 관계가 이어질 것임을 알 수 있다.

⑤ 윤보에게 조준구를 치라고 했던 삼수가 조준구의 목숨을 구해 줬다는 것으로 보아, 조준구와 삼수의 관계는 상황에 따라 변하는군.

→중략 줄거리 앞에는 윤보에게 “왜놈과 한통속인 조가부터 치고 보문 뽕 묵고 알 묵는 거 아니겠소.”라며 조가에 대한 반감을 드러내고 있으나 중략 줄거리를 보면 조준구를 살려 주고 있다. 따라서 조준구와 삼수의 관계는 상황에 따라 바뀌고 있음을 알 수 있다.

<TIP>

외적 증거를 가지고 푸는 문제는 대부분 3점으로 외적 증거에서 언급한 개념들을 주어진 장면에 어떻게 적용하여 해석하느냐가 중요하다. 따라서 인물 간의 관계와 말과 행동이 외적 증거에서

언급한 개념과 얼마나 연관성이 있는지를 잘 파악해야 한다. 기출 문제를 통해 문제 유형에 익숙해지는 것이 필요하다.

[19~22] 독서-인문(에피쿠로스의 자연학과 윤리학)

[지문 분석]

(가) 고대 그리스 시대의 사람들은 신에 의해 우주가 운행된다고 믿는 결정론적 세계관 속에서 신에 대한 두려움이나, 신이 야기한다고 생각되는 자연재해나 천체 현상 등에 대한 두려움을 떨치지 못했다.(신에 대한 고대 그리스 시대 사람들의 생각(두려움의 대상) 에피쿠로스는 당대의 사람들이 이러한 잘못된 믿음 (신에 대한 두려움과, 자연재해나 천체 현상 등이 신이 야기한다고 생각하는 것)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고, 이를 위해(잘못된 믿음에서 벗어나는 것) 인간이 행복에 이를 수 있도록(에피쿠로스 사상의 목적) 자연학(설명 대상 소개, 다음 단락의 내용은 '자연학'이 될 것임을 예상하며 읽기)을 바탕으로 자신의 사상을 전개하였다.

(나) 에피쿠로스는 <신의 존재는 인정하나 신의 존재 방식이 인간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다고 보고, 신은 우주들 사이의 중간 세계에 살며 인간사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이신론(理神論)적 관점을 주장한다.(< > : 이신론적 관점의 개념) 그(에피쿠로스)는 <불사하는 존재인 신은 최고로 행복한 상태이며, 다른 어떤 것에게도 고통을 주지 않고, 모든 고통은 물론 분노와 호의와 같은 것으로부터 자유롭다고 말한다.> (< > : 신에 대한 에피쿠로스의 생각) 따라서 에피쿠로스는 인간의 세계가 신에 의해 결정되지 않으며, 인간의 행복도 자율적 존재인 인간 자신에 의해 완성된다고 본다.(인간의 세계와 행복과 관련한 신에 대한 에피쿠로스의 생각 = 신이 아닌 인간 자신에 의해 완성된다.)

(다) 한편 에피쿠로스는 인간의 영혼도 육체와 마찬가지로 미세한 입자로 구성된다고 본다.(인간의 영혼에 대한 에피쿠로스의 생각) 영혼은 육체와 함께 생겨나고 육체와 상호작용하며 육체가 상처를 입으면 영혼도 고통을 받는다.(영혼의 특징) 더 나아가 육체가 소멸하면 영혼도 함께 소멸하게 되어(육체와 영혼의 관계) 인간은 사후(死後)에 신의 심판을 받지 않으므로, 살아 있는 동안 인간은 사후에 심판이 있다고 생각하여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된다. 이러한 생각(신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다)은 인간으로 하여금 죽음에 대한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는 근거가 된다.

(라) 이러한 에피쿠로스의 자연학은 우주와 인간의 세계에 대한 비결정론적인 이해를 가능하게 한다.(자연학의 의의(우주와 세계에 대한 비결정론적 이해) 이는 원자의 운동에 관한 에피쿠로스의 설명에서도 명확히 드러난다. <그는 원자들이 수직 낙하 운동이라는 법칙에서 벗어나기도 하여 비스듬히 떨어지고 충돌해서 튕겨 나가는 우연적인 운동을 한다고 본다. 그리고 우주는 이러한 원자들에 의해 이루어졌으므로, 우주 역시 우연의 산물이라고 본다.>(< > : 운동에 관한 에피쿠로스의 설명) 따라서 우주와 인간의 세계에 신의 관여는 없으며, 인간의 삶에서도 신의 섭리는 찾을 수 없다고 한다.(인간의 세계와 삶과 관련한 신에 대한 에피쿠로스의 생각) 에피쿠로스는 이러한 생각을 인간이 필

연성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자유 의지의 단초로 삼는다.

(마) 에피쿠로스는 인를(자유 의지) 토대로 자유로운 삶의 근본을 규명하고 인생의 궁극적 목표인 행복으로 이끄는 윤리학을 펼쳐 나간다. 결국 그는 인간이 신의 개입과 우주의 필연성, 사후 세계(두려움의 대상)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신의 삶을 자율적이고 주체적으로 살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었다. 그리고 쾌락주의적 윤리학을 바탕으로 영혼이 안정된 상태에서 행복 실현을 추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지문 확인]

(가)

■ 고대 그리스 인들에게 신은 두려움의 대상 (밀바탕 : 결정론적 세계관)
→ 에피쿠로스는 자연학을 바탕으로 인간이 행복에 이를 수 있도록 자신의 사상을 전개하였다.

■ 소주제 : 신에 대한 고대 그리스 시대 사람들의 생각

(나)

■ 이신론적 관점 : 신은 우주들 사이의 중간 세계에 살며 인간사에 개입하지 않는다.
■ 에피쿠로스가 생각한 신
- 불사의 존재이다.
- 최고로 행복한 상태이다.
- 다른 어떤 것에도 고통을 주지 않고, 모든 고통과 분노와 호의와 같은 것으로부터 자유로운 존재이다.

그러므로 인간의 세계는 신에 의해 결정되지 않는다.
인간의 행복도 신이 아닌 인간 자신에 의해 완성된다.

■ 소주제 : 에피쿠로스의 이신론적 관점

(다)

■ 에피쿠로스가 생각한 영혼
- 육체와 마찬가지로 미세한 입자로 구성된다.
- 육체와 함께 생겨나고 육체와 상호작용하며 육체가 상처를 입으면 고통을 받는다.
- 육체가 소멸하면 영혼도 함께 소멸한다.

그러므로 인간은 사후(死後)에 신의 심판을 받지 않으므로 신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 소주제 : 인간의 영혼에 대한 에피쿠로스의 생각

(라)

■ 원자의 운동에 대한 에피쿠로스의 생각
- 원자들은 우연적인 운동을 한다.

우주는 원자들에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우주 역시 우연의 산물이므로 우주와 인간의 세계에 신의 관여는 없다.

■ 소주제 : 에피쿠로스의 자연학

(마)

■ 윤리학 : 자유로운 삶의 근본을 규명하고 인생의 궁극적 목표인 행복으로 이끄는 것

■ 소주제 : 에피쿠로스의 윤리학

■ 주제 : 에피쿠로스의 자연학과 그의 쾌락주의적 윤리학

19. <답> ②
<정답률> 88%
<정답 풀이>
② 이 글은 에피쿠로스 사상 중 이신론적 과점을 바탕으로 한 신과 인간의 관계, 인간의 영혼과 육체의 관계, 우주와 인간의 세계에 대한 관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사상의 성립 배경은 (가)에 나와 있지만 표제로는 적절하지 않고, 인간과 자연의 관계보다 우주와 인간의 세계에 대한 신의 관여를 중심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③ 이 글에는 에피쿠로스 사상에 대한 비판과 옹호, 사상의 한계, 발전적 계승에 대한 언급은 나와 있지 않다.
④ 이 글에는 에피쿠로스 사상을 둘러싼 논쟁과 이견이 나와 있지 않다.
⑤ 이 글에는 에피쿠로스 사상의 현대적 수용, 행복과 쾌락의 상관성은 나와 있지 않다.
<TIP>
글 전체의 내용을 파악하고 그 내용의 세부 내용을 파악하는 문항이다. 글 전체의 핵심 화제에 대한 중심 문장과 뒷받침 문장을 찾는 연습이 필요한 문제이다.

20. <답> ④
<정답률> 88%
<정답 풀이>
④ ㉠과 ㉡은 인간이 잘못된 믿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근거를, ㉢은 행복에 이르도록 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 (가)를 통해 신에 의해 우주가 운행된다는 믿음을 에피쿠로스는 잘못된 믿음이라고 보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은 신들이 인간사에 개입하지 않는다고 보았다는 (나)의 내용과, ㉡은 우주와 인간의 세계에 신의 관여가 없다고 보았다는 (라)의 내용을 통해 ㉠과 ㉡은 인간이 잘못된 믿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마)를 통해 에피쿠로스는 ㉢을 바탕으로 인간이 행복에 이르도록 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은 인간이 신에 대한 두려움을 갖지 않게 해 주었다.
② ㉠은 우주가 신에 의해 운행된다고 믿는 근거를, ㉠과 ㉢은

인간의 사후에 대해 탐구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 (나)의 “에피쿠로스는 신의 존재는 인정하나 신의 존재 방식이 인간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다고 보고,”를 보면 ㉠은 우주가 신에 의해 운행된다는 것을 부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마)에서 ㉢은 “사후 세계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함으로써,”를 보면 ㉢은 인간의 사후에 대해 탐구하는 방법을 제시하지 않음도 알 수 있다.
③ ㉠과 ㉡이 인간이 영혼과 육체의 관계를 탐구하는 이유를 제시하고 있지 않다.
⑤ ㉠과 ㉡이 인간의 존재 이유와 존재 위치에 대한 탐색의 결과를 제시하고 있지 않으며, ㉢도 인간이 우주의 근원을 연구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TIP>
핵심 화제에 대한 이해를 묻는 문항이다. 핵심 화제는 제시된 문단을 중심으로 다른 화제로 넘어가기 전까지의 정보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평소 문단을 읽을 때 핵심 화제에 대한 정보를 정리하면 도움이 된다.

※ 본 해설 자료는 홍보용으로 공유되는 자료로서, 20번까지만 제공됩니다. 21번부터는 나무아카데미 사이트에서 유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나무아카데미의 자료를 무단으로 배포할 시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으며 모든 불법 게시물들은 저작권 침해 신고를 위해 캡처되고 있습니다.

등급컷

등급	원점수
1	87
2	80
3	72
4	62
5	50
6	37
7	26
8	20